

# 국내 이동도서관 서비스의 실태와 과제\*

- 인력, 차량, 장서 등을 중심으로 -

##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Bookmobile Services in Korea

- Focusing on Human Resources, Vehicles, and Collections -

조 용 완(Yong-Wan Cho)\*\*

### <목 차>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이동도서관 차량
II. 연구방법	4. 이동도서관 장서
III. 주요 연구 결과	5. 정보통신기술
1. 조사대상 이동도서관의 기본정보	IV. 결론 및 제언
2. 이동도서관 직원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이동도서관의 인력, 차량, 장서 등 서비스 인프라를 중심으로 전반적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8개의 외국 이동도서관 관련 기준 및 지침들을 활용하여 이동도서관의 기본 정보, 이동도서관 직원, 이동도서관 차량, 이동도서관 장서, 정보통신기술 등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설문조사를 개발하고, 전국 77개의 공공도서관 소속 이동도서관과 새마을 이동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내 이동도서관의 인력, 차량, 장서 등 서비스 인프라는 많은 항목에서 각국의 이동도서관 기준과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동도서관은 움직이는 또 하나의 분관이라는 인식 하에 인력, 차량, 장서 등 이동도서관의 서비스 인프라를 혁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동도서관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이동도서관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보복지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키워드: 이동도서관, 움직이는 도서관, 아웃리치, 인력, 차량, 장서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bookmobile services in Korea, especially focusing on human resources, vehicles, and collections. To do this, a questionnaire that contained questions on basic information, human resources, vehicles, collection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8 standards and guidelines related to bookmobile services and 77 bookmobiles belonging to public libraries and Saemaul bookmobiles were surveyed. As a result, many parts of human resources, vehicles, and collections of bookmobiles in Korea were inadequate to standards and guidelines related to bookmobile services. At the end of this study, some suggestions are made for improving bookmobile services in Korea. First, the human resources, vehicles, and collections of bookmobiles need to be innovated. Second, national policies for bookmobile services need to be reinforced. Third, perspectives on bookmobile need to be modified from economic approach to information welfare approach.

Keywords: Bookmobile, Mobile library, Outreach service, Human resource, Vehicle, Collection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8020896)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조교수(yongwan@cu.ac.kr)

•논문접수: 2015년 5월 20일 •최초심사: 2015년 9월 1일 •게재확정: 2015년 9월 14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3), 1-25,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09.1]

##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정부와 지자체 등의 노력으로 공공도서관 수가 2013년 현재 865개관(1관당 봉사인구 59,123명)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OECD 선진국과 1관당 봉사인구를 비교하면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 4~6배 정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1.5~2배 정도 많은 상태여서(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5, 16),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도서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움직이는 분관 도서관, 바로 이동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동도서관은 차량 등의 교통수단에 서가를 비롯한 여러 시설을 설치하고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서 등 도서관 직원이 각종 도서관 자료와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이동형태의 분관 도서관이다(조용완 2012, 206).

공공도서관 수가 우리보다 많고 1관당 봉사인구가 우리보다 적은 위의 여러 나라에서도 여전히 도서관 접근과 이용에 불편과 곤란을 경험하는 주민들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주민들을 위해 각 나라마다 이동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국내에서도 1920년대 철도도서관과 1930년대의 조선총독부도서관 등 순회문고 형식의 움직이는 도서관이 도입되었으나 자동차를 이용한 본격적인 이동도서관은 1971년 서울시립종로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공공도서관이 운영하는 이동도서관과 1984년부터 시작된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증가하면서 국내에도 이동도서관의 보급과 확산이 이루어졌다(조재순 2004, 26-27). 2012년 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는 공공도서관이 170곳(2010년 현재), 새마을문고가 43곳(2011년 현재)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용완 2012, 204).

국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도서관이 운영된 지 45년 이상이 되었지만, 반면 국내 이동도서관의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며, 그나마도 이미 오래 전에 조사된 연구들이다. 관련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임윤철은 당시 전국 17개 공공도서관이 운영하던 18곳의 이동도서관(새마을 이동도서관 20곳은 제외)을 대상으로 차종, 장서, 봉사대상 지역 수, 주차 시간, 연간 도서대출수 및 이용자수, 직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서울시립남산도서관의 이동도서관 이용자 150명을 대상으로 독서 관심도, 이용계기, 대출도서의 가족 이용현황, 시설 이동도서관 이용 경험, 대출기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임윤철 1986). 김영신은 대전지역 이동도서관을 대상으로 현장관찰을 진행하고 337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동도서관 서비스 운영실태와 이용행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이용자 배경정보, 이용목적, 방문시간대, 이용빈도, 자료유형, 전반적 요구, 불만사항, 대출도서와 희망도서, 홍보 등이 포함되었다(김영신 2000). 황인담은 대구지역의 공공도서관 이동도서관 5곳과 새

마을 이동도서관 5곳에서 569명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동도서관 이용목적, 독서성향, 이용만족도(직원, 자료, 차량, 홍보활동, 운영서비스)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황인담 2002) 최은주와 박중범은 서울시 은평구 이동도서관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이동도서관 이용상황(인지여부, 이용계기, 이용목적, 서비스 반경 등), 이동도서관 운영실태(순회시간대, 순회주기, 서비스시간, 대출권수 및 기간, 직원친절도, 불만사항 등), 이동도서관 이용효과 등을 조사하고, 담당자 4명을 대상으로 운영목적, 참고도서 적재여부, 장서교체 주기, 순회지역 개편, 이용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최은주, 박중범 2005). 한편, 새마을 이동도서관과 관련해 전해황은 대전지역 5개구 전체에서 운영되던 새마을 이동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이용횟수가 많은 이용자 1,063명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특성, 이용실태,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지역문화 중심기관 육성방안, 기타 애로사항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전해황 1994) 이진영은 서울시 새마을 이동문고를 대상으로 조직, 장비, 자료, 이용자, 재정, 직원 등의 측면에서 그 실태를 분석하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이진영 1995).

이처럼 국내 이동도서관 실태 연구들은 가장 최근의 연구가 10년 전에 수행되었고, 그 편수마저 손에 꼽을 정도로 연구의 양적 측면과 최신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공공도서관 소속 이동도서관 또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한 부분만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도시 또는 기초자치구의 이동도서관에 국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전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지역적으로 전국을 포괄하고, 운영주체로는 공공도서관과 새마을 이동도서관 모두를 포괄하며, 내용적으로는 이동도서관의 인력, 차량, 장서 등 서비스 인프라(① 국내 이동도서관에 대한 기본 정보, ② 이동도서관 직원 ③ 이동도서관 차량 ④ 이동도서관 장서 ⑤ 정보통신기술 등)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sup>1)</sup> 그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내 이동도서관 서비스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국의 이동도서관 관련 기준 및 지침들이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항목들이 존재할 경우, 그들과 비교하여 국내 이동도서관의 실태를 진단하였다.

## II. 연구방법

국내 이동도서관 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인력, 차량, 장서 등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외국 이동도서관 관련 기준 및 지침들을 참고하여 설문지를 개발하고,

1) 설문조사는 이동도서관의 인력, 차량, 장서 등 서비스 인프라와 정류장 운영, 방문 일정, 프로그램, 서비스, 홍보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해 진행되었으나, 페이지 제한이 있는 논문 1편에 모든 조사 내용을 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본 논문에서는 부득이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3호)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운영하는 이동도서관과 새마을 이동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개발에 참조한 기준과 지침들은 국제적, 국가적, 주차원의 도서관 기구 등이 제정한 것들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파악된 관련 기준과 지침들에 더해 이들이 인용한 다른 기준과 지침들로 이루어졌다. 당초 총 11개가 확인되었으나, 이동도서관 근무자의 보건안전과 이동도서관 디자인에 국한된 지침들과 초안(draft) 형태의 기준을 제외하여 <표 1>과 같이 총 8개의 관련 기준과 지침들을 참고하였다.

<표 1> 설문지 개발에 참고한 외국의 이동도서관 관련 기준과 지침 개요

번호	이동도서관 기준/지침 명칭	제정(작성)주체	제정연도
1	Standards of quality for bookmobile servic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산하 Public Library Association(ALA/PLA)의 Subcommittee on Bookmobile Standards	1963
2	National Bookmobile Guidelines	The State Library of Ohio(Ohio)	1988
3	Mobile Library Services (in Standard for New Zealand Public Libraries)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of New Zealand Aotearoa(LIANZA)	2004
4	Association of Bookmobile & Outreach Services Guidelines	Association of Bookmobiles & Outreach Services(ABOS)	2008
5	Mobile Libraries Standard	State Library of Queensland(Queensland)	2009
6	Mobile Library Guidelines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IFLA)	2010
7	Mobile Libraries (in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NSW Public Libraries>)	Library Council of New South Wales(New South Wales)	2011
8	Mobile Libraries(in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Australian Public Libraries>)	The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ALIA) & the ALIA Public Libraries Advisory Committee	2011

위의 이동도서관 관련 기준 및 지침들을 참고하여 개발한 이동도서관 실태 조사 설문지 중에서 인력, 차량, 장서 등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설문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이동도서관 기본 정보 : 소속, 소재지, 주요 운행지역 등 3문항
- ② 이동도서관 직원 : 현재 직원 수, 현재 직원 수의 적정성, 근무여건(근무환경, 승진기회, 휴가사용, 교육이수, 대체직원 편성, 업무분장 명시화), 직원 관련 개선사항 등 9문항
- ③ 이동도서관 차량 : 차량 종류, 연식과 주행거리, 차량 교체 조건, 차량 교체 주기, 차량 크기의 적정성, 차량 개조 부위, 차량 보관, 차량 정비, 차량 관련 개선사항 등 9문항
- ④ 이동도서관 장서 : 평소 적재한 장서 수, 이용대상별 장서 구성 비율, 향후 고려가 필요한 이용대상별 장서, 장서의 매체유형, 향후 고려가 필요한 장서의 매체유형, 장서의 순환/교체 주기, 장서개발 활동의 근거, 이용자요구 반영 정도, 장서 관련 개선사항 등 9문항
- ⑤ 정보통신기술 :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기기/네트워크 등 1문항

본격적인 설문조사의 진행을 위해 먼저 설문 배포 대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본 것처럼, 2010년 현재 공공도서관이 170개, 2011년 현재 새마을문고가 43개의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설문 배포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을 검색한 결과, 2014년 현재(2013년 데이터) 전국 이동도서관의 수가 무려 총 1,976개로 나타나는 오류를 보이고 있었다.<sup>2)</sup> 이어 <한국도서관연감 2011>에서 전국 이동도서관 리스트가 제공된 것을 감안하여 <한국도서관연감 2012>, <한국도서관연감 2013> 등을 검토하였으나 이동도서관 리스트는 제공되지 않았고 이동도서관 수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수치마저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과 동일한 오류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발송할 이동도서관 리스트를 확보하였다.

- ① <한국도서관연감 2011>에서 파악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2014년 현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공공도서관들을 1차 대상(73개관)으로 확정하였다.
- ② 2014년 현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2013년 데이터) 상의 국내 공공도서관 전체 리스트를 확보하여 위 ①의 조사과정에 포함된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도서관의 홈페이지 조사를 통해 홈페이지에 이동도서관 내용이 있거나 도서관 조직도에 이동도서관 담당자가 있는 도서관들(5개관)을 파악하여 설문조사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 ③ 2014년 2월에 2012년~2014년 1월 사이에 신설된 공공도서관들 중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행하는 월간지 <도서관문화>의 신설도서관 정보를 수집하고, 그 도서관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도서관 1곳을 파악하여 설문조사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 ④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2014년 2월 25일 전국 새마을문고의 대표조직인 (사)새마을문고 중앙회를 방문하여 담당과장과 협의하고 이후 수차례 전화로 협의한 후 (사)새마을문고 중앙회가 내부 공문과 함께 전국의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설문지 파일을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총 79개의 공공도서관 소속 이동도서관<sup>3)</sup>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확정짓고 2014년 2월~4월까지 설문조사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조사의 배포는 반송용 우편봉투와 설문

2) 이는 2010년 현재 전국 공공도서관 소속 이동도서관 170개에 비해 급증한 수치이다. 예를 들어, 이 시스템에서는 안양시석수도서관가 66개, 부천시립원미도서관이 60개, 성남시중원도서관이 49개의 이동도서관을 가진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보통 공공도서관이 이동도서관을 1-2개 정도 운영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추정컨대, 이는 통계작성 과정의 착오이며, 이동도서관 항목에 순회문고 운영 횟수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3) 이번 연구과정에서 파악된 79개는 2010년에 조사되어 2011년에 발간된 <한국도서관연감 2011>의 수치인 170개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정도가 축소된 수치이다.

조사지를 동봉하여 설문대상 공공도서관으로 우편 발송하는 방법을 채택하였고, 설문조사의 회수는 설문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우편 이외에 <구글 DOCS>를 통한 웹 설문도 활용하였으며, 총 60개가 회수되어 약 76%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들 중 2개의 설문지는 응답이 부실하여 제외되어 총 58개가 분석되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대상 설문조사는 내부 공문에 <구글 DOCS>를 통한 웹 설문조사 사이트의 주소를 표기하고, 동시에 설문조사 파일을 첨부하여 총 40개의 새마을 이동도서관으로 배포되었다. 설문조사의 회수는 <구글 DOCS>를 통한 웹 설문과 응답 완료된 설문지 파일을 메일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7개가 회수되어 약 43%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들 중 1개의 설문지는 응답이 부실하여 총 16개가 분석되었다. 위의 공공도서관과 새마을문고 소속 이동도서관 대상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총 119개(79+40)의 설문지 배포되었고 총 77개(60+17)의 설문지 회수되어 전체 회수율은 약 65%였다. 분석대상은 회수된 77개의 설문지 중 부실한 응답 3개를 제외한 총 74개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이동도서관 이용자들을 포함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 Ⅲ. 주요 연구 결과

#### 1. 조사대상 이동도서관의 기본정보

국내 이동도서관의 기본정보와 관련한 질문 중에서 이동도서관의 소속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2>와 같이 전체 응답 중 절반 정도인 48.6%가 지자체 소속이었고 29.7%가 교육청 소속으로 나타났으며, 21.6%가 새마을문고 소속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재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경기(21.6%)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 경북(13.5%), 전남(8.1%), 대구(8.1%), 강원(5.4%), 충남(5.4%), 울산(5.4%), 경남(4.1%), 광주(4.1%), 대전(4.1%), 부산(4.1%), 인천(4.1%), 제주(4.1%), 서울(2.7%), 전북(2.7%), 충북(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광역시와 도지역으로 구분하면, 7대 광역시는 32.4%, 도지역은 67.6%로 나타나 도서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도시보다는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 이동도서관이 더 많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주요 운행지역에 관한 질문에서 전체 유효 응답 중 도시지역이 51.4%, 도농복합지역이 25.7%, 농어촌지역이 18.6%, 기타가 4.3%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이동도서관들이 인구가 상대적으로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조사대상 이동도서관의 기본정보

항목	빈도	유효%	
소속	교육청	22	29.7
	지자체	36	48.6
	새마을문고	16	21.6
	합계	74	100.0
소재지	광역시	24	32.4
	도지역	50	67.6
	합계	74	100.0
주요 운행지역	도시지역	36	51.4
	농어촌지역	13	18.6
	도농복합지역	18	25.7
	기타	3	4.3
	합계	70	100.0

## 2. 이동도서관 직원

현재 국내 이동도서관 1곳당 직원 수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3>과 같이 평균 2.29명으로 파악되었다.4)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전직은 1곳당 평균 0.94명, 사서직은 평균 0.43명, 행정직은 0.36명, 공익근무요원/자원봉사자는 0.10명, 기타 직원은 0.46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직원에는 계약직, 위생직, 상용직 등의 응답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각국의 이동도서관 기준과 지침들과 비교한 결과, 이동도서관 1곳당 평균 직원 수는 이동도서관 서비스의 질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최소 2명의 직원을 권장한 내용과 부합하였다. 하지만, 사서가 없는 이동도서관이 거의 59%에 이르고 이동도서관 1곳당 사서직원 수가 평균

<표 3> 이동도서관 1곳당 직원 수

항목	명수	빈도	유효%	평균/표준편차	항목	명수	빈도	유효%	평균/표준편차
직원수 (전체)	1	8	11.4	2.29 / 0.705	직원수 (행정)	0	46	65.7	0.36 / 0.512
	2	36	51.4			1	23	32.9	
	3	24	34.3			2	1	1.4	
	4	2	2.9			3	0	0.0	
	합계	70	100.0			합계	70	100.0	
직원수 (운전)	0	4	5.7	0.94 / 0.234	직원수 (공익/자원봉사)	0	63	90.0	0.10 / 0.302
	1	66	94.3			1	7	10.0	
	합계	70	100.0			합계	70	100.0	
직원수 (사서)	0	41	58.6	0.43 / 0.527	직원수 (기타)	0	43	61.4	0.46 / 0.630
	1	28	40.0			1	22	31.4	
	2	1	1.4			2	5	7.1	
	합계	70	100.0			합계	70	100.0	

4) 전체 유효 응답은 74건이었으나, 직원 수를 4~8명으로 응답하고 동시에 운전직원 수를 2~4명으로 응답한 4건은 2개 이상의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특정 도서관(또는 교육청/기초자치구)에서 이동도서관 담당 전체 수를 응답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항목에 대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3호)

0.43명인 결과는 이동도서관 1곳당 최소 1명의 사서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 각국의 이동도서관 기준과 지침에 부합하지 않았다.<sup>5)</sup>

이어서 현재의 직원 수가 적정한지에 대해 5점 척도(매우 많음 1 ~ 매우 적음 5)로 질문한 결과, <표 4>와 같이 평균 3.45로 나타나 현재의 직원 수가 이동도서관 운영에 크게 무리를 주지는 않지만 그리 만족스러운 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직원 수가 많은 편이라는 응답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적은 편이라는 응답이 30%를 넘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표 4> 이동도서관 1곳당 직원 수의 적정성

항목	빈도	유효%	평균/표준편차
1 (매우 많음)	0	0.0	3.45 / 0.644
2 (조금 많음)	0	0.0	
3 (적당한 편)	47	63.5	
4 (조금 적음)	21	28.4	
5 (매우 적음)	6	8.1	
합계	74	100	

다른 도서관 직원과 비교했을 때 이동도서관 직원의 근무여건은 어떠한지에 대해 5점 척도(매우 좋음 1 ~ 매우 좋지 않음 5)로 질문한 결과, <표 5>와 같이 근로환경이 3.32, 승진기회가 3.78, 휴가사용이 3.71, 교육이수가 3.89, 휴가/교육으로 인한 대체직원 편성 3.80 등과 같은 평균점수를 보여 근무여건 전반에서 불만족 의견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동도서관 근무 관련 업무분장의 명시적 작성은 2.14로 나타나 대체로 잘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적절한 근로환경의 제공, 교육/질병/휴가 등을 위한 충분한 대체 직원의 확보, 타 도서관 직원과 동등한 교육훈련과 승진 기회 제공 등과 같이 각국의 이동도서관 기준과 지침에서 권장하는 근무여건 관련 내용에 대체로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이동도서관 직원 영역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분야 2가지를 선택해달라는 질문에서는 <표 6>과 같이 근무환경/처우 개선(56.8%)과 대체직원 지원 개선(54.1%)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 두 부분이 가장 열악하여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이어 전국 이동도서관 직원 교육/정보공유(32.4%), 직원 전문성 향상 및 친절도 향상(28.4%), 근무인력 확충(20.3%), 기타(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5) ALA/PLA, Ohio, LIANZA, ABOS, IFLA 등의 기준과 지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최소 2인이 근무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ALA/PLA, Ohio, ABOS 등의 기준과 지침에는 최소 1명의 사서직원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6) ALA/PLA, Ohio, LIANZA, ABOS, Queensland, IFLA, ALIA 등의 기준과 지침에는 이동도서관 직원은 본관 도서관 직원들과 동등한 권한과 지위, 근로환경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표 5> 이동도서관 직원의 근무여건

항목		빈도	유효%	평균 / 표준편차	항목	빈도	유효%	평균 / 표준편차
근로 환경	1 (매우 좋음)	5	6.8	3.32 / 1.039	승진 기회	1 (매우 좋음)	2	2.8
	2 (조금 좋음)	10	13.7			2 (조금 좋음)	3	4.2
	3 (적당함)	21	28.8			3 (적당함)	23	31.9
	4 (조금 좋지 않음)	31	42.5			4 (조금 좋지 않음)	25	34.7
	5 (매우 좋지 않음)	6	8.2			5 (매우 좋지 않음)	19	26.4
	합계	73	100			합계	72	100
휴가 사용	1 (매우 좋음)	4	5.5	3.71 / 1.148	교육 이수	1 (매우 좋음)	1	1.4
	2 (조금 좋음)	7	9.6			2 (조금 좋음)	5	6.8
	3 (적당함)	16	21.9			3 (적당함)	17	23.3
	4 (조금 좋지 않음)	25	34.2			4 (조금 좋지 않음)	28	38.4
	5 (매우 좋지 않음)	21	28.8			5 (매우 좋지 않음)	22	30.1
	합계	73	100			합계	73	100
휴가/교육시 대체 직원 편성	1 (매우 좋음)	5	6.8	3.80 / 1.085	업무 분장의 명시적 작성	1 (매우 좋음)	28	37.8
	2 (조금 좋음)	1	1.4			2 (조금 좋음)	20	27
	3 (적당함)	19	25.7			3 (적당함)	18	24.3
	4 (조금 좋지 않음)	28	37.8			4 (조금 좋지 않음)	4	5.4
	5 (매우 좋지 않음)	21	28.4			5 (매우 좋지 않음)	4	5.4
	합계	74	100			합계	74	100

<표 6> 이동도서관 직원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복수응답)

항목	빈도	유효%	항목	빈도	유효%	항목	빈도	유효%
근무인력 확충	15	20.3	직원 전문성 향상 및 친절도 향상	21	28.4	근무환경/처우 개선	42	56.8
대체직원 지원 개선	40	54.1	전국 이동도서관 직원 교육/정보공유	24	32.4	기타	1	1.4

### 3. 이동도서관 차량

이 영역에서 우선 이동도서관의 차량 종류를 살펴본 결과, <표 7>과 같이 중형버스(35인승 내외)가 4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형버스(25인승 내외)가 26%, 대형버스(45인승 내외)가 17.8%, 승합차가 6.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국의 이동도서관 기준과 지침에서는 차량의 크기와 유형은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봉사지역의 이용가능성, 기후, 도로, 지형, 인구수, 분산정도, 예상자료 수와 유형, 가격, 정보통신기술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sup>7)</sup>, 미래의 장서 증가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확장성, 이용자의 편의 증진, 직원의 근무

7) 이와 관련해서는 ALA/PLA, Ohio, LIANZA, ABOS, IFLA, ALIA 등의 기준과 지침에 잘 나타나 있다.

환경 등을 고려해 가급적 더 큰 차량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sup>8)</sup> 여기에 비춰볼 때, 중형버스와 소형버스가 이동도서관 차량의 다수를 점유하는 실태는 우리나라의 높은 인구밀도와 협소한 도로사정, 아파트 단지 등의 정류장 진출입 및 주차 등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적절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소규모 차량의 공간적 한계는 국내 이동도서관 서비스가 도서의 대출반납에 한정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소규모 차량 위주의 실태는 향후 자료의 증가, 매체의 다각화, 서비스의 다양화, 이용자와 직원의 편의 등을 위해 가급적 더 큰 차량을 권고하는 각국의 이동도서관 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이동도서관 차량의 종류

항목	빈도	유효%	항목	빈도	유효%
대형버스(45인승 내외)	13	17.8	트럭	0	0.0
중형버스(35인승 내외)	34	46.6	일반 승용차	1	1.4
소형버스(25인승 내외)	19	26.0	기타	1	1.4
승합차	5	6.8	합계	73	100

조사대상 이동도서관 차량의 평균 사용기간은 8.29년으로 나타나, 10~12년을 권장 사용연한으로 하고 있는 각국의 이동도서관 기준과 지침 등에 대체로 부합하였다.<sup>9)</sup> 하지만 권장 사용연한의 절반(5년~6년)을 기준으로 보면, 국내 이동도서관 차량 중 30.8%와 37.0%만이 절반 이하에 해당하고 있을 뿐이며, 전체 중 32.3%는 10년을, 10.6%는 12년을 초과하여 운영 중인 노후차량들로 교체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차량 노후화로 인한 정비 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직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안전사고의 가능성도 증가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8〉 이동도서관 차량의 연식(사용기간)

연식(사용기간)	빈도	유효%	연식(사용기간)	빈도	유효%	연식(사용기간)	빈도	유효%	평균 / 표준편차
1992년(22)	1	1.5	2003년(11)	6	9.2	2009년(5)	7	10.8	2005.71년 (8.29년) / 4.242
1995년(19)	1	1.5	2004년(10)	5	7.7	2010년(4)	5	7.7	
1997년(17)	1	1.5	2005년(9)	2	3.1	2011년(3)	4	6.2	
2000년(14)	3	4.6	2006년(8)	7	10.8	2012년(2)	3	4.6	
2001년(13)	1	1.5	2007년(7)	6	9.2	2013년(1)	1	1.5	
2002년(12)	8	12.3	2008년(6)	4	6.2	합계	65	100	

8) ALA/PLA, Ohio, ABOS 등의 기준과 지침에는 이동도서관 차량을 고려할 경우, 가급적 더 큰 차량을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9) 각국의 이동도서관 기준과 지침에서 차량 교체 연한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ALA/PLA 10~12년, Ohio 10년, LIANZA 10년, ABOS 12년, Queensland 12년, IFLA 10년 등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이동도서관 차량의 평균 주행거리는 <표 9>와 같이 51,540km로 나타났으며, 이를 평균 사용기간인 8.29년으로 나눈 연 평균 주행거리는 6,217km였다. 이처럼 적은 주행거리는 이동도서관이 비교적 적은 거리를 이동하고 서비스를 위해 정차하는 시간이 많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9> 이동도서관 차량의 주행거리

주행거리	빈도	유효%	최소값 /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1 - 25,000km	9	14.8	7,000km / 149,947km	51,540.54km / 29564.985
25,001 - 50,000km	28	45.9		
50,001 - 75,000km	13	21.3		
75,001 - 100,000km	7	11.5		
100,001 - 125,000km	3	4.9		
125,001 - 150,000km	1	1.6		
합계	61	100.0		

이동도서관 차량 교체주기가 적정한지에 대해 5점 척도(매우 좋음 1 ~ 매우 좋지 않음 5)로 질문한 결과, <표 10>과 같이 평균 3.63로 나타나 국내 이동도서관 담당자들은 차량교체 주기에 대해 그리 좋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절반 이상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고, 앞에서 이동도서관 차량 중 32.3%가 10년을 초과해 운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이동도서관 차량 교체주기는 어느 정도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이동도서관 차량 교체주기의 적정성

항목	빈도	유효%	평균/표준편차
1 (매우 좋음)	3	4.3	3.63 / 0.995
2 (조금 좋음)	2	2.9	
3 (적당함)	28	40	
4 (조금 좋지 않음)	22	31.4	
5 (매우 좋지 않음)	15	21.4	
합계	70	100	

위에서 본 것처럼, 이동도서관 차량 중 32.3%가 사용기간 10년을 초과하였고, 교체주기에 대해 절반 이상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는 것과 관련해 이동도서관 차량의 교체조건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11>과 같이 사용연한과 주행거리 모두를 충족해야 교체가 가능한 경우가 58.6%로 가장 많았고, 사용연한만 충족이 필요한 경우는 30.0%였으며, 주행거리만 충족이 필요한 경우는 10.0%였다. 즉, 거의 70% 가량이 주행거리를 충족시켜야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이동도서관들은 지역 내에서 단거리를 이동하여

30-60분 정도 정차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패턴을 반복하며, 여름과 겨울에는 이동과 정차 중에 냉난방을 가동할 때도 있다. 그러다보니 연간 평균 주행거리가 6,217km로 차량의 상태가 양호한 것 같지만 실제 차량의 상태는 주행거리에 비해 더욱 악화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행거리 충족이 차량 교체조건일 경우에는 10년~12년을 운행해도 주행거리가 6~7만km 정도에 그쳐 사실상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달리 각국의 이동도서관 기준과 지침들은 주행거리가 짧은 이동도서관 차량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차량의 교체주기를 사용연한으로 설정할 뿐 주행거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sup>10)</sup> 외국의 관련 기준 및 지침들과 달리 70% 가량의 이동도서관 차량이 그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주행거리 충족을 교체조건으로 적용받기에 현재 최대 1/3 가량의 이동도서관 차량이 노후화되었음에도 적절히 교체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표 11> 이동도서관 차량의 교체조건

항목	빈도	유효%
사용연한 + 주행거리	41	58.6
사용연한	21	30.0
주행거리	7	10.0
기타	1	1.4
합계	70	100

도로운행과 주정차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이동도서관 차량의 크기가 적정한지에 대해 5점 척도(매우 큼 1 ~ 매우 작음 5)로 질문한 결과, <표 12>와 같이 평균 2.92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도로운행과 주정차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의 차량, 특히 중소형 버스 위주의 이동도서관 운영이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12> 이동도서관 차량 크기의 적정성

항목	빈도	유효%	평균/표준편차
1 (매우 큼)	0	0.0	2.92 / 0.467
2 (조금 큼)	11	15.3	
3 (적당함)	56	77.8	
4 (조금 작음)	5	6.9	
5 (매우 작음)	0	0.0	
합계	72	100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대상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 내부와 외부에 필요한 부분을 개

10) 참고한 각국의 이동도서관 기준과 지침들 중 주행거리를 차량 교체의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이동도서관 차량의 개조 부위를 모두 표기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표 13>과 같이 거의 모든 차량이 서가(97.2%)와 업무용 책상/의자(94.4%)를 개조하였고, 이어서 수납함(64.8%), 네비게이션/후방카메라(57.7%), 변압기(인버터) (57.7%), 추가 냉난방(49.3%), 추가 배터리/발전기(47.9%) 등의 순으로 많이 개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서가와 책상 등 이동도서관의 대출/반납 업무에 필수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개조작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TV/오디오/비디오 (15.5%)나 뒷문 출입문(26.8%), 내부 바닥(나무/카펫) (21.1%), 이용자용 좌석(31.0%) 등에 대한 개조는 비교적 적었다. 이러한 차량 개조 실태는 운행지역의 도로사정과 정류장 환경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이동도서관 = 자료의 대출반납”이라는 인식의 고착화 등으로 인해 서가와 책상 등을 설치하면 여유공간이 없는 중소규모 버스를 주로 선택해온 국내 이동도서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광고판, 외부 스피커 등 중요도가 낮은 개조 부위는 차치하더라도, 사계절 이동도서관 운영, 직원의 기본적 근무환경 보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에 필수적인 뒷문 출입문, 네비게이션/후방카메라, 변압기, 추가 냉난방, 추가 배터리/발전기 등을 개조한 차량 수가 전체 이동도서관 차량 중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동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직원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증진 등을 위해 차량 내부와 외부에 다양한 시설과 장치를 설치하고 개조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각국의 이동도서관 기준과 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sup>11)</sup>

<표 13> 이동도서관 차량의 개조 부위

항목	빈도	유효%	항목	빈도	유효%	항목	빈도	유효%	항목	빈도	유효%
서가	69	97.2	수납함	46	64.8	업무용 책상/의자	67	94.4	측면 문(서가용)	27	38.0
뒷문 출입문	19	26.8	이용자용 좌석	22	31.0	추가 조명	31	43.7	추가 냉난방	35	49.3
추가 배터리/발전기	34	47.9	네비게이션/후방카메라	41	57.7	TV/오디오/비디오	11	15.5	외부(지붕) 스피커	30	42.3
전광판(전자 광고판)	5	7.0	바닥(나무/카펫)	15	21.1	변압기(인버터)	41	57.7	기타 개조 부위	2	2.8

국내 이동도서관 차량의 보관 상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14>와 같이 조사대상 중 70.4%는 도서관 내부에 이동도서관 차량 주차구역을 확보한 반면에, 29.6%는 관리가 비교적 어려운 도서관 외부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서관 내부 또는 외부에 전용차고

11) Ohio, LIANZA, ABOS, Queensland, IFLA 등의 기준과 지침에는 이동도서관 차량의 전력공급(엔진 전원, 배터리, 발전기, 외부전원 등), 냉난방(엔진 냉난방, 추가 냉난방) 및 환기, 서가공간, 업무공간, 운전공간, 편의 공간, 수납공간, 이용자공간, 설치물, 내부조명, 마감재, 출입구, 창문, 외부조명, 외관장식, 수납공간, 후방카메라, 접이식 공간확장 모듈, 차양, 계단, 단열 등과 관련해 다양한 개조와 보강에 관련된 사항들을 권고하고 있다.

(차양)을 가진 경우는 34.2%에 불과해 약 2/3정도의 차량들은 안전한 관리와 원활한 정비 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이동도서관 차량의 안전한 보관과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차고를 설치하고 유지보수 장비를 비롯한 각종 설비 등을 구비하도록 권고하는 각국의 이동도서관 기준과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sup>12)</sup>

〈표 14〉 이동도서관 차량의 보관 방식

항목	빈도	유효%
도서관/기관 내부 전용차고(차양)	17	23.9
도서관/기관 내부 노면주차	33	46.5
도서관/기관 외부 전용차고(차양)	8	11.3
도서관/기관 외부 노면주차	10	14.1
기타	3	4.2
합계	71	100

이동도서관 차량 정비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 5점 척도(매우 좋음 1 ~ 매우 좋지 않음 5)로 질문한 결과, 〈표 15〉와 같이 평균 2.50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체 응답 중 20.9%는 정비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 이동도서관 차량에 대한 정비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5〉 이동도서관 차량 정비의 적정성

항목	빈도	유효%	평균/표준편차
1 (매우 좋음)	18	25.0	2.50 / 1.163
2 (조금 좋음)	18	25.0	
3 (적당함)	21	29.2	
4 (조금 좋지 않음)	12	16.7	
5 (매우 좋지 않음)	3	4.2	
합계	72	100	

이동도서관 차량 영역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 2가지를 선택해달라는 질문에서는 〈표 16〉과 같이 차량 내부환경 개선(41.7%), 차량 성능 개선(38.9%), 차량 교체 조건 완화(34.7%) 등이 높은 응답을 보여 이들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응답자들은 차량 외부 디자인 개선, 더 큰 차량으로의 교체, 차량 보관환경 개선, 차량 정비

12) ALA/PLA, Ohio, LIANZA, ABOS, Queensland, IFLA 등의 기준과 지침에는 이동도서관 차량 보관시설과 설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권고하고 있다.

강화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여 이들 부분은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16> 이동도서관 차량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복수응답)

항목	빈도	유효%	항목	빈도	유효%	항목	빈도	유효%
더 큰 차량으로의 교체	5	6.9	동일 차량으로의 교체	20	27.8	차량 교체 조건 완화	25	34.7
성능 개선(엔진/배터리/냉난방 등)	28	38.9	차량 내부 환경 개선	30	41.7	차량 보관 환경 개선	11	15.3
차량 외부 디자인 개선	4	5.6	차량 정비 강화	12	16.7	기타	3	4.2

#### 4. 이동도서관 장서

조사대상 이동도서관들이 평소 적재하는 장서량은 <표 17>과 같이 평균 2,500~3,000권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으며, 대부분(73.6%)의 차량들이 2,000~4,000권 범위의 장서를 적재하고 있었다. 반면, 4천권 이상을 적재한 경우는 12.6%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국내 이동도서관 차량 대부분(72.6%)이 중/소형버스인 것과 연결 지을 수 있다.

<표 17> 이동도서관의 장서 소장량

항목	빈도	유효%	평균/표준편차
① 0~500권 미만	3	4.2	6.26 / 2.207
② 500~1,000권 미만	0	0.0	
③ 1,001~1,500권 미만	3	4.2	
④ 1,501~2,000권 미만	4	5.6	
⑤ 2,001~2,500권 미만	14	19.4	
⑥ 2,501~3,000권 미만	20	27.8	
⑦ 3,001~3,500권 미만	11	15.3	
⑧ 3,501~4,000권 미만	8	11.1	
⑨ 4,001~4,500권 미만	4	5.6	
⑩ 4,501~5,000권 미만	1	1.4	
⑪ 5,001~5,500권 미만	3	4.2	
⑫ 5,501~6,000권 미만	0	0.0	
⑬ 6,000권 이상	1	1.4	
합계	72	100.0	

이동도서관 소장 장서의 이용대상별 구성 비율을 표시해달라고 질문한 결과, <표 18>과

같이 성인 장서(38.3%)가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어린이 장서(29.3%), 영유아 장서(20.5%), 청소년 장서(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이동도서관 장서의 이용대상별 구성 비율

항목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영유아 장서	73	0	95	20.5	15.892
어린이 장서	73	0	60	29.3	12.782
청소년 장서	73	0	40	11.8	8.102
성인 장서	73	0	90	38.3	16.41

향후 이동도서관 장서에서 더욱 고려되어야 할 이용대상별 장서는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표 19〉와 같이 영유아 장서(36.2%)를 가장 많이 고려해야 하며, 다음으로 어린이 장서(27.5%), 청소년 장서(20.3%), 성인 장서(15.9%) 등의 순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9〉 향후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한 이용대상별 장서

항목	빈도	유효%
영유아 장서	25	36.2
어린이 장서	19	27.5
청소년 장서	14	20.3
성인 장서	11	15.9
합계	69	100.0

현재 이동도서관 장서의 매체유형을 모두 선택해달라고 질문한 결과, 〈표 20〉에 나타난 것처럼 국내 단행본(95.9%)은 거의 모든 이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동시에 거의 유일하게 제공되는 자료로 파악되었다. 국내 단행본 외에 팸플릿자료 CD/DVD는 33.9%, 참고자료는 13.5%, 대활자도서와 다문화/다국어 자료는 12.2%, 잡지/학술지는 6.8%만이 제공되었으며, 시청각자료와 점자/장애인 자료, 전자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처럼 국내 이동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자료유형은 국내 단행본이 거의 전부일 정도로 편중이 심하였는데, 이는 국내 이동도서관의 장서구성이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며, 변화하는 사회구성과 정보환경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전자자료와 시청각자료를 제공하는 이동도서관이 거의 없는 것은 현재의 이동도서관 차량 중 다수가 과거부터 채택되어온 중소형 버스여서 차량 내부가 협소하여 서가 공간 외에 이용자용 노트북 등을 설치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국내 이동도서관 장서의 매체유형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인구 구성과 관심사 등을 반영하여 도서, 동화책, 대활자도서, 녹음도서, 비디오, 필름, DVD,



CD, 토크북, 다국어자료, 정기간행물, 실물교재, 소프트웨어, 인터넷/전자자원, 장난감(신체장애/지적장애 아동용) 등 다양한 포맷의 자료를 구비하고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을 위한 자료 유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 각국의 이동도서관 기준 및 지침에 매우 부합하지 않았다.<sup>13)</sup>

〈표 20〉 이동도서관 장서의 자료유형 소장 비율(복수응답)

항목	빈도	유효%	항목	빈도	유효%
국내 단행본 (전집포함)	71	95.9	잡지/학술지	5	6.8
말립자료 CD/DVD	25	33.8	참고자료(사전/백과사전)	10	13.5
전자자료 (e북/전자저널)	0	0.0	시청각자료	2	2.7
점자/장애인 자료	2	2.7	대활자(큰글씨)도서	9	12.2
다문화/다국어 자료	9	12.2	기타	2	2.7

향후 이동도서관 장서에 더욱 고려되어야 할 매체유형은 무엇인지를 선택(10개 항목 중 3개)해달라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표 21〉과 같이 국내 단행본(64.9%)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나 현재의 소장비율과 비교할 경우, 그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반면에, 현재 이동도서관 장서로 잘 소장되지 않았던 다문화/다국어 자료(51.4%), 대활자/큰글씨 도서(35.1%), 잡지/학술지(25.7%), 시청각 자료(18.9%), 전자자료(13.5%) 등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였다. 이는 이동도서관 담당자들이 현재의 단행본 중심의 장서구성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인구구성과 그들의 요구, 고령화와 다문화, 정보화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장서구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응답이 향후 장서구성에 반영될 경우, 앞에서 언급한 이동도서관 장서의 매체유형에 관련된 각국의 이동도서관 기준 및 지침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 향후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한 자료유형별 장서(복수응답)

항목	빈도	유효%	항목	빈도	유효%
국내 단행본 (전집포함)	48	64.9	잡지/학술지	19	25.7
말립자료 CD/DVD	17	23.0	참고자료 (사전/백과사전)	12	16.2
전자자료 (e북/전자저널)	10	13.5	시청각 자료	14	18.9
점자/장애인 자료	4	5.4	대활자/큰글씨 도서	26	35.1
다문화/다국어 자료	38	51.4	기타	2	2.7

13) 이와 같은 다양한 포맷의 장서구성과 관련해서는 ALA/PLA, Ohio, LIANZA, ABOS, Queensland, IFLA 등의 기준과 지침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그 중 IFLA 기준은 이동도서관 장서가 2천권일 경우, 성인소설 5백권, 성인비소설 4백권, 어린이소설 2백권, 어린이비소설 2백권, 그림책 2백권, 청소년 도서 150권, 성인문해와 외국어자료 100권, 대활자도서 100권, 토크북 50권, 오디오 100건 등과 같이 구성할 것을 예시로 권고할 정도로 이동도서관 장서구성에서 지역주민의 연령, 성, 종교, 인종 등의 다양성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동도서관의 장서 수장량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서의 순환/교체가 보편적으로 시행된다. 국내 이동도서관 장서의 순환/교체 주기는 어떠한지 질문한 결과, <표 22>와 같이 수시 교체가 3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 3-4회(25.7%), 연 5-6회(13.5%), 연 7-8회와 연 1-2회(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4.73(연 평균 6~7회 정도)으로, 평균 2개월에 1회 정도 순환/교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환/교체 주기는 이동도서관 장서의 최신성과 참신성을 위해 2~6개월에 1회 순환을 권장하고 있는 각국의 이동도서관 기준 및 지침에 매우 잘 부합하고 있었다.<sup>14)</sup>

<표 22> 이동도서관 장서의 순환/교체 주기

항목	빈도	유효 %	항목	빈도	유효%	평균/표준편차 4.73 / 1.853
① 없음	0	0.0	⑤ 연 7~8회	8	10.8	
② 연 1~2회	8	10.8	⑥ 연 9~10회	6	8.1	
③ 연 3~4회	19	25.7	⑦ 수시	23	31.1	
④ 연 5~6회	10	13.5	합계	74	100.0	

장서선정과 폐기, 순환 등과 같은 이동도서관 장서개발 활동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 진행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 <표 23>과 같이 명문화된 정책을 통해서라는 응답은 24.3%에 지나지 않았고, 직원간의 논의(43.8%)와 기존 관행(20.5%), 없음(6.8%) 등과 같이 비공식적이고 임의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장서개발 근거의 부재는 장서의 범위와 심도에 관한 지표 설정과 장서의 선정, 주문, 기증, 보유, 폐기, 이동도서관에서 즉시 이용하지 못하는 장서에 대한 접근, 장서개발 우선권 등을 포함하는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각국의 이동도서관 기준과 지침에 상당히 어긋나고 있는 실정이었다.<sup>15)</sup>

<표 23> 이동도서관 장서개발 활동의 근거

항목	빈도	유효%
명문화된 정책	18	24.7
직원간 논의	32	43.8
기존 관행	15	20.5
없음	5	6.8
기타	3	4.1
합계	73	100.0

14) 이동도서관 장서의 순환/교체와 관련해서는 ALA/PLA, Ohio, LIANZA, ABOS, Queensland, IFLA 등의 기준과 지침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으며, 순환/교체주기는 2-6개월에 1회, 최소 연간 4회 또는 정기적으로 순환(일정 주기에 대한 제시 없음) 등으로 권고되어 있다.  
 15) Ohio, ABOS, IFLA 등의 기준과 지침에서는 이동도서관의 체계적인 장서개발 활동을 위해 장서개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현재 이동도서관의 장서가 이용자의 요구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5점 척도(매우 반영 1 ~ 매우 미반영 5)로 질문한 결과, <표 24>와 같이 평균 2.12(매우 반영 31.5%, 조금 반영 32.9%, 보통 30.1%, 조금 미반영 2.7%, 매우 미반영 2.7%)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대체로 이용자의 요구를 잘 반영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담당자들이 일상 업무를 통해 파악된 이용자의 요구를 장서구성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이동도서관 담당자들의 주관적인 응답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봉사지역 이용자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각국의 이동도서관 기준과 지침에 상당히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6)</sup>

<표 24> 이동도서관 장서의 이용자 요구 반영 정도

항목	빈도	유효%	평균/표준편차
1 (매우 반영)	23	31.5	2.12 / 0.985
2 (조금 반영)	24	32.9	
3 (보통 반영)	22	30.1	
4 (조금 미반영)	2	2.7	
5 (매우 미반영)	2	2.7	
합계	73	100	

이동도서관 장서와 관련해 향후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2개 선택해달라고 질문한 결과, <표 25>와 같이 장서 확충(62.2%)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다문화/장애인 등을 고려한 장서 다변화(43.2%), 장서개발의 이용자 참여 증대(36.5%)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이러한 응답은 위의 향후 매체유형 고려시 다문화/다국어 자료와 대활자도서 등이 높게 응답된 것과 결부되어, 담당자들이 기초적인 장서 확충 요구 외에 지역사회의 변화하는 주민구성과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5> 이동도서관 장서에 관련된 개선 사항(복수응답)

항목	빈도	유효%	항목	빈도	유효%	항목	빈도	유효%
장서 확충	46	62.2	전자/시청각/참고자료 등 증대	15	20.3	다문화/장애인 등 장서 다변화	32	43.2
장서개발 정책 명문화	12	16.2	장서개발의 이용자 참여 증대	27	36.5	기타	2	2.7

16) 이동도서관 장서의 이용자요구 반영과 관련해서는 ALA/PLA, Ohio, LIANZA, ABOS, Queensland, IFLA 등의 기준과 지침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 5. 정보통신기술

현재 국내 이동도서관들의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기기, 통신 네트워크를 모두 선택해달라고 질문한 결과, <표 26>과 같이 이동도서관의 자료 대출/반납 업무와 이용자 등록 등의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업무용 PC/노트북(97.3%)은 거의 대부분 구비되어 있었으나, 음향시설/스피커, 무선 네트워크, DVD/CD 재생기기, 빔 프로젝터, 스크린, 프로그램용 TV, 이용자용 PC/노트북, 프린터 등이 제공되는 경우는 매우 적었으며, 이용자용 태블릿 PC와 전자책 단말기는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 도서관들이 이동도서관의 기능을 자료의 대출반납 중심으로 인식해온 전통과 이동도서관 차량들이 대부분 자료 공간조차도 넉넉하지 않은 중 소형 버스 위주라는 문제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동도서관 이용자들에게도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기기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접속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각국의 이동도서관 기준과 지침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sup>17)</sup>

<표 26> 이동도서관에 구비된 정보통신기술과 기기, 네트워크(복수응답)

항목	빈도	유효%	항목	빈도	유효%	항목	빈도	유효%
업무용 PC/노트북	72	97.3%	무선 네트워크 접속	10	13.5%	DVD/CD 재생기기	5	6.8%
이용자용 PC/노트북	2	2.7%	프로그램용 TV	2	2.7%	음향시설/스피커	21	28.4%
이용자용 태블릿 PC	0	0.0%	스크린	4	5.4%	프린터	1	1.4%
전자책(e-book) 단말기	0	0.0%	빔 프로젝터	4	5.4%	기타	0	0.0%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이동도서관 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과 새마을 이동도서관 74개를 대상으로 인력, 차량, 장서 등 서비스 인프라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공공도서관이 지식정보자원의 공적 유통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관이라면, 이동도서관은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도서관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내 공공도서관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수가 선진국에 비해 1.5~6배 가량 부족하며 기

17) Ohio, LIANZA, Queensland, IFLA, New South Wales 등의 기준과 지침에는 온라인 참고자료 및 디지털 참고봉사의 제공, 직원의 업무 수행, 이용자의 목록 검색과 인터넷 검색, 이용자의 각종 비도서 매체의 활용 등을 위해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기기, 통신 네트워크들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존의 공공도서관들 중 상당수의 입지가 지역주민의 주거지나 근무지 등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여전히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은 상태이다. 여기에 더해 군부대와 요양병원, 농어촌 및 도시 변두리의 학교들과 같이 도서관 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평등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유용성을 지닌 이동도서관에 대해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본격적인 정책수립과 체계적 지원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근 예산과 인력 절감을 내세우며 감축과 폐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sup>18)</sup> 또한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이동도서관들도 앞의 조사결과들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인력, 차량, 장서 등의 서비스 인프라 중 많은 항목들이 각국의 이동도서관 기준과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국내 이동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도서관 사서와 직원들 스스로 “이동도서관 = 자료의 대출반납”이라는 기존 방식을 버리고 “이동도서관 > 자료의 대출반납”, 즉, 이동도서관은 움직이는 또 하나의 분관이라는 생각으로 기존의 이동도서관 서비스 인프라를 혁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동도서관 스스로가 인력, 시설(차량), 장서 등에서 독자적 완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사서가 1곳당 0.43명인 상태에서, 차량 내부에 서가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단행본만이 가득한 장서를 통해서 자료의 대출/반납을 넘어 이용자들에게 건물 형태의 도서관이 제공하는 수준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앞으로 이동도서관은 정보복지를 구현하는 움직이는 도서관 분관이라는 인식 하에 전문성이 있는 사서 인력을 1곳당 1명씩 배치시켜 지역주민들이 이동도서관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소임을 맡기는 한편, 이동도서관 직원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향상시켜 이동도서관 인력 부문에서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장서를 수용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차량에 지역주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훌륭한 외관, 최신기술의 우수한 설비, 편의와 안전을 위한 시설 개조를 통해 이동도서관 차량 부문에서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sup>19)</sup> 여기에는 더 큰 차량으

18) <한국도서관연감 2011>(2010년 현재)에서 파악된 이동도서관의 수는 170곳인데 비해, 이번 연구과정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동도서관 운영 여부를 파악하여 설문지를 발송한 수치인 79개로 몇 년 사이에 거의 절반 정도 축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의 언론 기사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이동도서관이 감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산 이동도서관 '50년 역사 뒤로하고 추억 속으로””, 노컷뉴스 2015년 3월 24일. “도서관 예산 17% 삭감, 책장 텅이라는 대구시”, 매일신문 2014년 12월 16일. “이동도서관이 사라진다”, 동양일보 2013년 12월 12일. “양주 새마을 이동도서관 결국 문 닫는다”, 경기일보 2015년 6월 3일. “창원시의회 임시회 종료...주요안건 살펴보니”, 경남도민일보 2013년 9월 16일.) 이 외에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울산남부도서관, 구리시립도서관, 여주시 새마을문고 등을 비롯한 여러 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19) 이동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차량의 혁신이나 외관의 변신을 통해 큰 이슈가 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시내버스의 인기 만화 캐릭터 “타요버스”로의 변신, 한 제과업체의 굴절버스를 활용한 “로봇 극장” 등을 들 수 있다. 이동도서관의 경우, 외국에서는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굴절버스, 대형 트럭 등을 이용해 “트랜스포머”처럼 차량공간이 확장되고, 계단이 내려오며, 차양이 펼쳐지고, 내부에 무대가 만들어

로 인해 생기는 운행과 주차의 문제는 이동경로와 정류장의 재구성 등을 통해 최대한 해결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주기적인 요구조사와 인구 통계조사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주민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다양한 매체의 장서를 구성하여 이동도서관 장서 부문에서 혁신을 이룰 필요가 있다.

둘째, 이동도서관의 인력, 차량, 장서 등 서비스 인프라의 혁신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동도서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이동도서관 육성 및 활성화가 제대로 추진된 적이 별로 없다. <도서관종합발전계획 2009-2013> 중 “3.1.3.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활성화”에 “외부출입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이동도서관 서비스 제공 등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 그리고 “3.1.5.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는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이동도서관 확대 등 농산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 적이 있고(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94; 99-100),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4-2018> 중 “2.2.3 장병을 위한 병영도서관 서비스 강화”에 “이동도서관(TMO, 황금마차 등) 운영으로 접근성 개선”이 포함된 적은 있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73). 하지만, 몇 년간 2번에 걸친 국가적 도서관 정책에 이동도서관은 이름만 올라 있을 뿐 정책적 배려는 제대로 받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되돌아온 것은 절반에 가까운 이동도서관의 감축과 인력, 차량, 장서 등 서비스 인프라의 저성장이었다. 또한 <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에는 몇 년째 이동도서관 데이터에서 오류가 발생되어 정확한 수치조차도 파악할 수 없으며, 국내 이동도서관 담당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동도서관 실태조사도 미비한 실정이다. 향후 국가적 도서관 정책에는 이동도서관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차량, 인력, 장서 등 서비스 인프라 강화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동도서관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보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과정에서 조사된 국내 이동도서관 수의 급감은 최근 공공도서관의 증가, 특히 작은도서관의 증가로 인한 도서관 접근성의 향상, 이동도서관 이용자와 대출권수의 감소, 모체기관(교육청, 기초지자체)의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한 이동도서관 운영비와 인력의 감축과 잉여 비용과 인력의 타 업무 활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추정된다. 이동도서관을 투입과 산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용이 저조한 여러 이동도서관은 폐지되어야 하겠으나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정보격차 해소와 정보복지 증진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동도서관은 오히려 육성, 장려될 필요가 있다. 현행 <도서관법>에는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노인, 농어촌 주민 등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해 도서관이 적극 서비스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도서관 선진국들도 원격지 주민들을

지는 이동도서관들이 준비하다. 국내에서도 눈에 띄는 걸모습에 “변신”까지 하는 경기도 고양시 이동도서관, 45인승 대형 버스 내부를 개조하여 장서 외에 빔 프로젝터, 이용자 좌석, 간이 무대까지 갖춘 김해도서관의 북버스, “타요버스”로 외관을 단장한 서울시 이진아기념도서관의 이동도서관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위해 이동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인력, 장서 등에 투자하고 있다.<sup>20)</sup> 따라서 앞으로는 현재와 같이 일반적인 이동도서관 폐지와 감축을 중지하고, 도서관 사각지대에 있는 도시 외곽과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연령, 직업, 인종, 종교, 관심사를 가진 주민들과 도서관 여건이 좋지 않은 초중고교의 학생, 그리고 특정 시설 외부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군인과 요양원 거주 주민, 시설 수용 주민들에게 일반 주민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동도서관의 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영신. 2000. 이동도서관의 이용행태 연구-대전지역의 이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3): 5-23.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5.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2015년도 시행계획』.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이진영. 1995. 서울시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도서관』, 50(1): 24-37.
- 임윤철. 1986. 공공도서관의 이동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 『도서관연구』, 3: 73-87.
- 전해황. 1994.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육성방안: 대전직할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이용자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개발학술지』, 4: 123-159.
- 조용완. 2012. 이동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3): 203-231.
- 조재순. 2004. 이동도서관(book mobile)의 효시. 『도서관계』, 14(8): 26-28.
- 최은주, 박종범. 2005. 이동도서관 이용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문논총』, 13:

20)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개괄적으로 살펴본 일부 도시의 이동도서관 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다. 미국 뉴욕시의 자치구 중 하나인 브루클린은 인구 259만명에 65개의 중앙도서관과 분관을 운영하면서도 도서관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 4대의 이동도서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구 84만명의 도시인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27개의 중앙도서관 및 분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5대의 이동도서관(친환경 이동도서관인 Green Bookmobile,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Early Literacy Mobile,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Library On Wheels, 첨단 디지털 장비를 구비한 Techmobile, 트래저 아일랜드 지역을 운행하는 Treasure Island Bookmobile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 261만명의 도시인 캐나다 토론토는 100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별도로 2대의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국 시애틀, 영국 런던, 호주 브리즈번 등과 같은 도서관 접근성이 우수한 대도시에도 이동도서관이 계속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도서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 이동도서관은 더욱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29-160.

한국도서관협회. 2011. 『한국도서관연감 2011』.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황인담. 2002. 『대구지역 이동도서관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Association of Bookmobile and Outreach Services. 2008. *Association of Bookmobile and Outreach Services Guidelines*. [online]. [cited 2014. 1. 21]. <<http://www.abos-outreach.org/2008BookmobileGuidelines.pdf>>.

IFLA. 2010. *Mobile Library Guidelines*. Hague: IFLA Headquarters.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of New Zealand Aotearoa. 2004. *Mobile Library Services (in Standard for New Zealand Public Libraries)*. Wellington: LIANZA.

Library Council of New South Wales. 2011. *Mobile Libraries (in Living Learning Libraries: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NSW Public Libraries(3rd ed.))*. Sydney: Library Council of New South Wales.

State Library of Queensland. 2009. *Mobile libraries standard, Queensland Public Library Standards and Guidelines*. [online]. [cited 2014. 1. 15]. <[http://www.slq.qld.gov.au/\\_data/assets/pdf\\_file/0003/146262/SLQ\\_-\\_Mobile\\_libraries\\_standard\\_June\\_2009.pdf](http://www.slq.qld.gov.au/_data/assets/pdf_file/0003/146262/SLQ_-_Mobile_libraries_standard_June_2009.pdf)>.

Subcommittee on Bookmobile Standard, Public Library Associati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3. *Standards of Quality for Bookmobile Service*.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The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 the ALIA Public Libraries Advisory Committee. 2011. *G.12 Mobile Libraries (in Beyond a Quality Service: Strengthening the Social Fabric.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Australian Public Libraries)*. Deakin: ALIA.

The State Library of Ohio. 1988. *National Bookmobile Guidelines 1988*. Columbus: The State Library of Ohio.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 Yong-Wan. 2012. "A Study on the Standards and Guidelines Related to Bookmobile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3): 203-231.



- Choi, Eun Ju & Jong Beom Park. 2005.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Library Bookmobile Service." *Humanities for Citizen*, 13: 129-160.
-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08. *The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2009-2013)*. 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4. *The 2<sup>nd</sup>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2014-2018)*. 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5. *The 2<sup>nd</sup>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2014-2018) 2015 Implementation Plan*. Seou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Hwang, In-Dam. 2002.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the Book Mobile Library User*. M. A. thesis. Keimyung University, Korea.
- Jeon, Hae-Hwang. 1994. "Promotion Strategy of "Sae Ma UI" Bookmobile for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Development*, 4: 123-159.
- Jo, Jae-Soon. 2004. "The Beginning of Book Mobile." *Newsletter of Libraries*. 14(8): 26-28.
- Kim, Young-Shin. 2000. "A Study on User Behavior of Bookmobile Services in Dae Jeon C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3): 5-23.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1. *Korea Library Yearbook 2011*.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Jin-Young. 1995.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the "Sae Ma UI" Bookmobile in Seoul City." *Libraries*, 50(1): 24-37.
- Lim, Yun-Cheol. 1986.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Bookmobiles of Public Libraries." *Library Research*, 3: 73-87.